

인간 너머 정원

- 비인간에 관한 환경미학적 공간 이론 연구 -

가드너-리서처온어스

가방니¹, 김소현², 박소영³, 박정은⁴, 조담빈⁵, 한예서⁶

[¹서울대 조경학 박사과정, ²서울대 조경학 석사과정, ³서울대 조경학 박사과정, ⁴서울대 조경학 석사과정, ⁵서울대 조경학 석사, 서울대 조경학 석사과정]

1. 서론

정원은 인간과 자연의 중간지대, 즉 제 3의 자연이다. 정원은 태초부터 경계 짓는 공간이었다. 여러 언어의 정원을 가리키는 단어들, 영어의 가든(garden), 독일어 가르텐(garten), 프랑스어 자르덴(jardin), 이탈리아어 자르디노 (giardino)에서 볼 수 있는 공통 어소는 울타리를 의미하는 ‘gher’ 또는 둘러싸다는 뜻의 ‘ghort’에서 비롯되었다. 한자어 정원의 원 (園) 역시 예운 담(口)이 특징이다. 수많은 문화권의 어원이 시사하듯 정원은 야생의 자연으로부터 인간을 가둔다. 하지만 정원에서 인간은 자연을 완전히 가두지는 않는다. 자연에 대한 담을 쌓는 인간 문화의 발상과 발달해 온 정원은 원생의 제 1의 자연도, 강도 높은 통제에 놓이는 농경지와 같은 제 2의 자연도 아니다. 정원은 문화화된 자연, 즉 제 3의 자연으로 인식되어 왔다(Hunt, 2000). 정원에서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경계를 짓는 동시에 자연을 적극적으로 도입한다. 즉 정원은 인간과 비인간은 문화적·미학적으로 관계 맺는 장소이다. 또한 정원에서 인간은 자연을 완전히 가두지 못한다. 정원예술은 시간의 예술이라 불리운다. 인간이 정원의 정형화된 형태를 설계하더라도 정원은 반드시 시간과 함께 변화한다. 정원을 재-창작하는 주체는 시간이라는 개별자가 아니며, 흐르는 시간 동안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은 수없이 얽힌 비인간들의 배치(asmblage)이다. 형형색색의 꽃과 잎을 띄우고 지우는 식물, 식물이 뿌리내리는 흙의 작은 생물, 지렁이, 뿌리혹박테리아, 매미 유충..., 식물과 흙에서 먹이와 은신처를 얻는 벌, 나비, 새..., 그리고 이들이 감응하는 햇빛, 기후가 얽힌 거시적인 지구 시스템, 이들 비인간이 인간과 공존·경쟁·협력하며 다 같이 정원을 만드는 것이다.

이 연구는 인간과 비인간의 새로운 관계 맺기의 실험실로서 자연과 문화 사이 제 3의 자연이자 수많은 비인간이 복잡거리는 장소인 정원을 주목한다. 전통적인 정원예술에서 창작의 주체는 인간으로 인식되어 왔다. ‘미’라는 이름 아래 정원에서 인간은 땅을 구획하고 평탄화하고 ‘그림 같은’ 구릉을 만들고 나무를 조각했다(Hunt, 1994). 정원예술의 관심사는 지형과 원예식물의 형태에 국한되어 왔고 그 형태는 본성(nature)과 다르게 조작되었다(Elkin, 2017). 인간 문화와 자연을 구분하는 이원론 속에서 정원을 비롯한 지구에서 비인간은 다만 무언가를 위한 대상일 따름이었다. 하지만 인류세의 조건은 비인간과 함께하는 상상력을 긴급히 요구하고 있다. 인간은 스스로를 자연, 즉 비인간 존재들과의 그물망 속으로 연계시키고, 생태적·사회적 관계에 대한 새로운 사고, 그리고 지속가능한 사회에 대한 상상력을 펼쳐야 하며(Bauer and Ellis, 2018), 그에 알맞은 최적의 장소가 바로 정원인 것이다. 이 연구는 인간-자연 이원론에서 벗어나 인간과 비인간이 협업하는 창작으로서 정원 예술을 정의하고, 그러한 관점에서 새롭게 인식되거나 조성된 정원을 ‘인간-너머 정원’이라 칭한다. 환경미학으로 인간-너머 정원을 감각하기 이 연구는 정원에 상존하는 비인간을 세심하게 포착하고 느끼기 위해 환경미학적 접근을 취한다. 환경미학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인간의 감각 및 인식세계를 미학적으로 탐구한다. 비인간을 고려한 정원예술 연구와 관련해 환경미학이 지닌 이론적 가능성은 무엇보다도 ‘인간과 환경을 연속적인 것으로 보는 관점’에 있다. 먼저, 환경미학은 환경과 도시를 인간의 주변이나 배경이 아닌 연속적인 장으로 접근하며, 어떤 경험에서 인간은 환경을 단지 바라보는 것을 넘어 소리, 냄새, 맛, 피부의 촉감 등 공감각적으로 느끼며 총체적인 환경 속에 긴밀히 연계된다(Berleant, 1991; 1992). 이러한 접근은 인간과 자연을 분리하는 사고를 극복하고자 하며 비인간의 행위성과 그와의 상호 얽힘에 주목하는 인류세의 정원예술 연구와의 접점을 가진다.

이 연구모임은 현장 조사나 설계 실험보다는 정원과 비인간 존재를 둘러싼 이론적 논의의 지형을 검토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연구는 '인간-너머 정원'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정원예술·환경미학·비인간 행위성·다종 공존 등의 주요 논의를 검토하며 여섯 개의 주제 영역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첫째, 인간너머 정원 연구를 위한 이론과 방법에서는 정원을 제3의 자연으로 정의한 기존 논의를 정리하고, 정원 연구의 개념적 전환을 위한 환경미학적·현상학적 접근을 살폈다. 둘째, 인간-식물 관계에서는 식물의 행위성과 돌봄·경쟁의 관계를 중심으로, 인간-식물 상호작용의 윤리적·정동적 구조를 분석하였다. 셋째, 인간-동물 관계에서는 '동물 공간'과 '집승 장소'의 구분을 통해 인간 질서에 대한 동물의 교란과 공존의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넷째, 정원에서의 시간은 계절과 노화의 미학을 통해 정원이라는 장소에서 시간성과 생명 리듬이 어떻게 감각되는지를 논의하였다. 다섯째, 외래종 담론에서는 '침입'이라는 언어와 수사학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외래종의 존재를 새로운 생태적 관계로 재해석하는 관점을 모색하였다. 여섯째, 동물에 대한 미감은 동물의 아름다움과 추함이 인간-비인간 관계를 구성하는 감각적·윤리적 구조임을 밝히며, 미학과 생태윤리의 접점을 탐색하였다. 이처럼 여섯 주제의 문헌 검토를 통해 본 연구는 정원을 인간 중심적 미학의 범주를 넘어, 인간과 비인간이 함께 세계를 구성하는 실천적 장으로 재개념화하기 위한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2. 본론

1) 인간너머 정원 연구를 위한 이론과 방법

(1) 정원의 역사와 개념

정원 가꾸기와 원예는 농업의 하위 분류가 아니라, 인간과 식물 사이의 심층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발전해온 문화적 실천이다. 이 실천은 농업보다 더 이른 시기의 복잡한 채집 문화(cultural foraging)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정원은 생존을 위한 공간일 뿐 아니라 감각과 계절, 리듬이 교차하는 실천의 장소로 기능해왔다. 정원사는 의도적이고 실천적인 행위자로서 자연을 다루는 동시에, 정원의 형태는 다양한 문화적 이상 속에서 구성되어 왔다. 오늘날 정원은 여전히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구체적으로 매개되는 체현된 실천의 장이며, 단지 경관이 아닌 삶의 양식이 구현되는 공간으로 이해될 수 있다.

정원은 물리적 또는 상징적 울타리로 경계지어지면서도 공기, 빛, 날씨, 생명체에게는 열려 있는 독특한 경계 공간이다. 이처럼 정원은 인간이 자연과 관계 맺는 방식을 드러내는 감각적이고 실천적인 장소이며, 하이데거가 말한 '거주하기(dwelling)'의 구체적 방식으로 읽을 수 있다. 좋은 정원사는 고대의 원예 유산을 인식하며, 이를 통해 지역적이고 생태적인 삶을 조직하고, 감각과 돌봄, 공동체적 가치를 실현하는 실천을 이어간다. 이와 같이 정원은 미적·경제적·윤리적 층위를 아우르는 복합적 장소이며, 자연과 타인 사이의 경계, 사적 소유와 공적 효용이라는 긴장도 그 안에 내재한다.

현대 정원은 '먹거리 vs 여가', '투쟁 vs 수용'이라는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네 가지 이상형으로 나뉠 수 있다. 첫째, 농업-전투형 정원은 전통적인 식량 생산을 강조하며, 잡초나 해충과의 투쟁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둘째, 쾌락-전투형 정원은 여가와 시각적 쾌락을 중시하되, 높은 자원 소비와 낮은 생물 다양성이라는 한계를 지닌다. 셋째, 농업-수용형 정원은 유기농 자급과 생태적 자율성을 지향하며, 식물의 자가 산포나 퇴비화 등의 방식으로 작동한다. 넷째, 쾌락-수용형 정원은 감각적 즐거움과 생태적 복합성을 중시하며, 곤충, 새, 식물들과의 공존을 전제로 한 소규모 생태계를 형성한다. 이 네 유형은 정원이 지닌 개별적 특성과 문화적 이상, 정원 일반의 보편 개념이 만나는 접점을 드러낸다(Ott, 2024).

(2) 정원을 탐색하는 이론적 도구들

정원에 대한 인문학적 접근은 다양한 이론적 도구를 통해 정원의 의미와 실천을 탐색할 수 있게 해준다. 해석학, 기호학, 고고학은 정원을 문화적 텍스트로 간주하고, 사료나 이미지, 유물 등을 통해 과거의 정원 실천을 해석하며, 현대 정원 인식과의 연속성을 추정적으로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자연의 현상학은 정

원의 감각적 체험과 정원 향기, 식물과의 만남 같은 구체적 경험에서 출발해 언어와 신체적 실천을 통해 존재론적 깊이를 모색하는 철학적 접근이다. 이러한 해석학과 현상학의 상호작용은 정원사이자 역사학자인 연구자가 과거와 현재의 정원 경험을 연결하는 사변적 대화를 가능케 하며, 정원을 생활세계로서 현시하는 인식론적 기반이 된다(Ott, 2024).

더불어 환경미학은 정원을 감각, 상상력, 감정이 교차하는 다감각적 감상의 장소로 이해한다. 정원의 아름다움은 단순히 보는 대상이 아니라, 인간과 비인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감응적 경험으로 구현되며, 이는 환경윤리와 미적 판단의 새로운 토대를 제공한다. 이러한 미학적 경험은 과학적 인식주의와 감각적 몰입 사이의 균형 속에서, 정원이 지닌 감각적·도덕적 가능성을 조명한다(Brady, 2020).

(3) 자연의 현상학의 한 방법으로서 걷기

정원 경험을 구체화하는 현상학적 방법 중 하나는 걷기이다. 걷기 방법론은 감각과 정동을 탐구하는 방식으로, 후각, 청각, 촉각과 같은 비시각적 감각에 주목하며 주체성과 세계 인식의 형성 과정을 드러낸다. 감각을 분리하거나 혼합하는 실험적 걷기(예: 촉각적 걷기, 공감각적 걷기)는 비재현적 실천으로서, 걷는 몸을 통해 장소와 관계 맺는 방식 자체를 낫설게 만들고 확장한다. 특히 정동 이론과 결합된 걷기는 신체 간에 순환하는 강렬함, 장소의 분위기, 시간성과 감정의 맥락이 어떻게 얽혀 있는지를 드러내며, 걷기를 통해 인간과 비인간, 현재와 미래 사이의 윤리적 관계맺기의 가능성을 제시한다(Springgay and Truman, 2017).

2) 인간-식물 관계

(1) 식물의 행위성

정원에서의 인간-비인간 관계는 더 이상 인간의 의도와 노동이 중심이 되는 일방향적 작동으로 설명될 수 없다. 식물은 단순한 재료가 아니라, 정원의 구성과 가드너의 실천에 영향을 주는 행위적 존재로 자리 잡는다. 즉, 식물은 인간의 선택과 통제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정원이라는 공간과 인간의 정서적·실천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며, 관계 속에서 그 의미와 정체성을 형성하는 비인간 행위자로 작동한다. 이러한 인식은 자연을 도구화하고 객체화하던 기존 자연-문화 이분법의 틀을 흔들며, 가드너와 식물 사이의 상호조율과 공동 구성의 관계를 새롭게 드러낸다.

이러한 행위성은 첫째로 돌봄의 맥락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가드너는 식물을 관찰하고, 이해하고, 그 특성과 필요에 따라 돌보며, 동시에 식물 역시 특정 방식으로 인간의 감각을 자극하고, 주의를 요구하고, 물리적·정서적 반응을 유도한다. 식물은 스스로를 돌보아야 할 대상으로 만들 뿐 아니라, 가드너가 어떻게 정원을 구성할지, 무엇에 정서적으로 헌신할지를 형성하는 존재가 된다. 가령, 가드너는 식물의 생장 방식이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그늘 만들기, 공간 차단 등)을 고려하여 다른 식물의 배치를 조정하거나 돌봄의 리듬을 재조정하게 된다. 이런 면에서 식물은 인간의 계획을 수용하거나 재조정하게 만드는 참여자이며, 가드너의 리듬과 내용에 정서적, 물리적 영향을 미치는 주체로 기능한다.

반면 식물의 행위성은 경쟁과 충돌의 맥락에서도 강하게 드러난다. 특히 '잡초'는 인간 가드너의 계획과 통제에 저항하는 대표적인 비인간 행위자이다. 잡초는 계획된 정원 구성에 포섭되지 않으려는 식물적 의지의 표현으로 등장하며, 이동성과 생존 전략을 통해 정원의 질서에 균열을 내는 존재로 작용한다. 바람이나 물에 의해 확산되며 예측 불가능한 위치에 나타나는 잡초는, 가드너의 통제력과 정원에 대한 권위를 끊임없이 시험한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히 식물을 제거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식물과 인간 사이의 지속적 갈등과 협상의 과정을 의미한다. 식물은 이 경쟁적 맥락에서 저항하는 능력, 다시 말해 계획에 맞서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을 생산하는 능력으로써 행위성을 발휘한다.

결국 식물의 행위성은 '돌봄'과 '경쟁'이라는 상반된 축을 따라 복합적으로 구성된다. 식물은 인간과 협력하며 감응적 관계를 형성하는 동시에, 때로는 질서에 저항하고 충돌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존재를 주장한다. 이러한 상호적 행위성은 식물을 하나의 정체된 대상이 아니라, 실천 속에서 끊임없이 인간과 함께 조정

되고 변형되는 존재로 이해하게 하며, 인간-비인간 관계를 새로운 윤리적, 정치적 차원으로 확장시킨다 (Powe, 2010).

(2) 인간-식물 관계 연구의 방법론

Sarah Elton(2021)은 도시 정원에서 인간-식물 관계를 탐구하기 위해 세 가지 단계적 방법론을 제안한다. 첫째, 식물의 시간 인식하기는 식물이 따르는 고유한 시간성을 감각적으로 수용하는 접근이다. 식물은 매우 느리거나 순간적인 반응을 요구하는 시간을 따르며, 연구자는 이 리듬에 적응하고, 기다림과 감응을 통해 관계를 맺는다. 이러한 시간은 인간-식물 간 평온하고 중재적인 관계를 매개하며, 식물의 존재 방식에 연구자가 조율되는 과정을 요구한다. 둘째, 식물과의 참여하기는 식물을 관찰 대상이 아닌 행위적 타자로 간주하는 태도에서 출발한다. 연구자는 식물과 함께 돌보고 생산하며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통해, 식물이 인간 언어로 완전히 번역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게 된다. 그러나 이 단계는 식물의 정치적 행위성까지는 충분히 포착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드러낸다. 셋째, 스케일을 키우기는 개별 식물이나 가지가 아닌, 식물 커뮤니티 전체를 정치적 단위로 사유하려는 전환이다. 도시 정원의 초연함과 공동체성은 동네의 장소 만들기, 사회적 관계 형성과 연결되며, 이를 통해 식물의 집합적 행위성이 드러난다. 정원은 개별 식물의 모음이 아니라 장소 정치에 기여하는 생태적 아상블라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 세 가지 접근은 식물을 감각적·존재론적·정치적 주체로 인식하게 하며, 인간 중심적 연구 방법을 확장하고 재구성하는 데 기여한다(Elton, 2021).

3) 인간-동물 관계 (Philo and Wilbert, 2004)

(1) 동물 공간과 짐승 장소

Philo와 Wilbert(2004)는 인간이 예측과 통제를 전제로 인공적으로 만든 동물 공간(animal spaces) 과 인간의 질서에서 벗어나 동물이 만들어내는 짐승 장소(beastly places) 를 구분한다. 동물 공간은 가축 사육장, 동물원, 실험실 등 인간이 동물을 관리·활용하기 위해 만든 장소를 뜻한다. 반대로 짐승 장소는 동물이 예기치 않게 드러내는 행위성과 인간의 제도적 장치 틈새에서 발생하는 공간으로, 인간의 예상과 규범을 교란한다. 인간-비인간 간의 정동적 관계('귀여움'이나 '교감'), 인간의 예상 밖에서 발견되는 비인간 행위성, 그리고 제도의 빈틈 속에서 드러나는 동물의 공간적 개입이 그 특징이다. 도시 안에서도 이러한 짐승 장소는 생산되며, 두 장소가 중첩될 경우 인간과 비인간이 경합하는 코스모폴리틱스의 장이 열린다.

이와 함께 'in place'와 'out of place'의 구분은 동물이 인간이 정한 '적절한 장소'에 머물러야 한다는 사회적 상상을 보여준다. 반대로 동물이 그 장소를 벗어날 때, 인간은 당혹과 불안을 경험하며 동물의 행위성이 보다 선명히 드러난다. 사이드의 '심상지리(imaginative geography)' 개념은 이러한 공간적 타자화 과정을 설명하는 중요한 틀이다. 인간 담론은 종종 동물을 '우리'와 '다른 존재'로 개념적 타자화하면서 동시에 '우리 인간의 공간이 아닌 곳'에 위치시키는 지리적 타자화를 병행해왔다.

(2) 인간 - 동물 관계와 새로운 동물 지리학

콩고 동부 카후지-비에가 국립공원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인간 - 동물 관계는 시간에 따라 다양한 행위자와 얽히며 변화한다. 고릴라는 학문 연구의 대상이자, 관광 자원이자, 전쟁 반군의 은신처에서 밀렵의 대상이 되는 등 시대와 맥락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를 띠었다. 이처럼 동물의 행위성과 위치, 그리고 경관은 정치·경제·문화적 힘과 얽히며 시기에 따라 달라진다.

기존 동물 지리학은 동물을 인간과 분리된 자연의 일부로 보고, 그들의 분포나 서식 패턴에 주목했다. 그러나 새로운 동물 지리학(new animal geography) 은 동물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정의되고 분류되며, 인간과의 얽힘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추적한다. 동물은 식용·애완·해충·유용성·지각 여부 등에 따라 시대별로 달리 분류되었고, 이러한 배치는 수렵채집·가축화·산업혁명·자본주의·탈산업 사회까지 인간의 생산 방식과 밀접히 맞물려왔다.

'동물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곧 경계 문제로 이어진다. 계통학이나 유전학, 감각 능력(쾌고감수능력) 등으로 동물을 구분할 것인지, 혹은 행위성의 차이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에 따라 동물 지리학의 범위가 달라진다. 도시-시골-야생이라는 전통적 구분은 심상지리적 상상에 기반한 것일 뿐이며, 사실상 도시는 반려동물 뿐 아니라 길고양이, 들쥐, 각종 야생 동물이 살아가는 장소이기도 하다. 동물원은 이러한 경계를 뒤집은 대표적 사례다. 야생 동물을 인간의 거주지 가까이에 통제된 공간으로 옮겨놓음으로써, 동물은 더 이상 '야생'에 속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을 부여받았다. 그러나 이는 과학·오락·교육이라는 목적이 항상 긴장하며 공존하는 불안정한 장소였다.

(3) 행위성, 교란, 그리고 공존의 요청

새로운 동물 지리학은 동물의 행위성(animal agency)에 주목한다. 동물은 인간의 계획된 배치를 따르기만 하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때로는 이를 거슬러 저항하고 새로운 공간을 창출한다. 반려동물이 거리로 뛰쳐나가거나, 런던의 침팬지 'Cholmondeley'가 버스를 탑승한 사건처럼 동물은 'out of place'로 등장하며 인간의 상식을 혼돈다.

여기서 논쟁은 동물의 저항을 어디까지 행위성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에 있다. 전통적으로 의도와 자의식은 인간에게만 있다고 여겨졌지만, ANT의 관점에서 행위성은 선천적 속성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생성되는 효과로 이해된다. 따라서 동물 역시 인간의 공간 질서를 위반·교란하며 '집중 장소'를 만들어낼 수 있다.

동물은 또한 주변 공간(marginal space)에서 인간 질서를 혼드는 존재로 나타난다. 도시 하수구의 쥐, 철도 주변 방치된 땅의 생물, 재개발 지역의 길고양이처럼, 이들은 '제자리를 벗어난' 존재로 혐오·공포와 연결되지만 동시에 인간과 긴밀히 공존한다. 완전히 길들여지지 않았으나 완전한 야생도 아닌 길고양이나 들개는 '사이(in-between)' 공간을 활용하는 경계적 동물(liminal animal)로, 인간-비인간 관계의 복잡성을 드러낸다.

결국 동물은 고유한 영토성과 장소성을 지니며, 인간은 이를 존중하고 더 많은 공간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단순히 동물을 의인화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중심주의를 넘어 동물에게도 생명과 공간, 장소의 권리를 부여하는 '예의'를 확장하는 행위다. 새로운 동물 지리학은 이를 통해 인간-비인간의 공존 방식을 재구성하려 한다.

4) 정원에서의 시간

계절과 시간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정원은 인간과 자연을 매개하며 일상에서 벗어나 느린 시간을 감각하게 한다. 언 땅이 녹고 흙이 부드러워지며 싹트는 연두색 잎, 한여름 매미 소리와 붉은 동백꽃, 가을 들녘에 뿌려지는 수많은 씨, 누렇게 말라 가지만 남은 정원에 내리는 눈은 각기 다른 감각을 선사한다. 삶의 지혜와 자연의 리듬이 담겨있는 정원은 절기에 따라 생동하는 자연이며 그 속에는 시간의 흐름과 생명의 원리가 존재한다. 4계절, 12개월, 24절기에 따라 변화하는 비인간을 관찰함으로써 기다림, 참을성, 느린 성장을 지향하는 정원의 특별한 시간 감각을 탐구한다.

(1) 사계절과 리듬의 미학(Macauley, 2021)

David Macauley는 『The Seasons』에서 환경철학이 장소의 문제에는 집중하면서도 시간의 차원을 소홀히 다뤘다고 지적한다. 그는 계절이라는 개념을 통해 장소와 시간의 경험이 어떻게 얽혀 있는지를 탐구하며, 이를 '장소 기반 시간(place-based time)'의 감각으로 제시한다. 계절은 단순한 날씨의 변화가 아니라 색, 소리, 온도, 냄새와 같은 감각적 리듬을 통해 세계의 질서와 인간의 인식을 연결하는 매개이다. 라틴어 *sationem* (과중)에서 유래한 계절은 시간의 흐름을 구획함과 동시에 장소에 뿌리내린 질서와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며, 인간을 넘어선 자연의 시간성을 드러낸다.

그에게 계절은 반복이지만 결코 동일하지 않은 순환이다. 해마다의 가을은 기온, 강수, 식생, 동물의 움직임에서 차이를 보이며, 이러한 '차이를 품은 반복'이 자연 세계와의 만남을 심화시킨다. 인간은 계절의 규칙성을 즐기지만 동시에 미묘한 일탈과 변동 속에서 미적 쾌감을 느낀다. 이러한 리듬은 생물학적 변화이자 문화적 형식으로, 음악처럼 긴장과 흐름을 내포한 시간의 감각을 형성한다.

Macauley는 또한 연대기적이고 양적인 크로노스(chronos)와 질적이며 사건 중심의 카이로스(kairos)를 구분한다. 정원은 바로 이 카이로스적 시간의 장으로 이해된다. 씨를 뿌리는 시점을 달력의 날짜가 아니라 '마지막 서리가 지난 후'라는 감각적 기준으로 판단하는 행위는 계절의 질적 시간에 몸을 맞추는 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처럼 '한 마리 제비가 여름을 만들지 않듯,' 계절은 개별 사건이 아니라 서서히 드러나는 패턴으로 인식된다. 정원은 이러한 패턴과 리듬을 일상 속에서 체현하는 장소이다.

그는 계절 중심적 사고가 인간과 지구의 관계를 재구성하는 생태적 서사로 작동한다고 본다. 계절은 역사적·지질학적 시간의 연속성을 몸으로 느끼게 하며, 정원 가꾸기나 공동체 활동 같은 실천을 통해 생태적 지혜를 회복하게 한다. Macauley는 이를 '장소 중심적 삶(lococentrism)'과 '시간 중심적 삶(temporocentrism)'의 건강한 결합으로 설명하며, 계절의 감각을 예술과 일상 미학을 연결하는 핵심 토대로 제시한다. 결국 계절의 리듬을 따르는 삶은 인간의 몸과 세계의 호흡을 다시 잇는 감각적 윤리로 귀결된다.

(2) 노화의 미학(Saito, 2007)

Yuriko Saito는 『Everyday Aesthetics』에서 시간의 흔적이 남긴 미적 가치를 탐구한다. 그녀는 18세기 영국의 픽처레스크 미학과 일본의 와비 미학이 공통적으로 노화와 쇠락을 긍정적으로 해석한 사례임을 지적하며, 시간의 개입이 대상의 아름다움을 심화시킨다고 본다. 우드데일 프라이스가 말했듯, '시간이라는 위대한 저자가 젊음을 픽처레스크한 아름다움으로 바꾼다.' 이 관점에서 노화는 파괴가 아닌 형태의 변화이자 새로운 감각적 질서의 탄생으로 이해된다.

Saito는 또한 이러한 미학이 단순한 취향이 아니라 삶의 불확실성과 죽음을 수용하기 위한 실존적 대처 전략이라고 설명한다. 일본의 '이치고 이치에' 철학은 오직 한 번뿐인 만남과 시간의 무상함을 긍정하며, 와비 미학은 불완전함과 우연성을 감싸 안는 태도를 제시한다. 이 미학적 감수성은 삶의 덧없음을 미화하면서도, 그 속에서 존재의 의미를 찾으려는 윤리적 시도이다. 그러나 Saito는 무상함의 미화가 현실의 불평등이나 고통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전용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 따라서 일상미학은 시간의 흔적을 감각하는 윤리적 주의를 유지해야 하며, 쇠락과 변화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되 그 이면의 사회적 맥락을 성찰해야 한다. 정원의 낡은 표면과 계절의 쇠퇴는 이러한 윤리적 감수성을 훈련시키는 구체적 장면으로 읽을 수 있다.

5) 외래종 담론

(1) 외래종에 대한 생태학 논의

외래종에 대한 논의는 오랫동안 '침입'과 '퇴치'의 프레임 속에서 다뤄져 왔다. 이러한 편향된 시각은 외래종이 사람과 자연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가치를 간과하게 만든다. Sax, Schlaepfer, Olden(2022)은 비토착종을 단순히 생태계 교란의 주범으로 보는 관점을 넘어, 그들이 제공하는 관계적(relational), 도구적(instrumental), 내재적(intrinsic) 가치를 포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틀을 제안한다. 인간의 직접적인 관리 없이 자생 범위를 넘어 정착한 종들을 대상으로, 외래종이 문화·경제·생태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을 살펴며, 일방적인 '제거' 중심의 접근이 과학적 이해와 정책 발전을 오히려 방해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관계적 가치는 외래종이 인간의 정체성과 생활양식 속에 스며들며 형성하는 사회적·문화적 유대감을 뜻한다. 예컨대 미국령 버진아일랜드의 야생 당나귀나 남아프리카의 자카란다, 켄터키주의 블루그래스처럼 외래종은 지역의 상징이나 정체성의 일부로 작동한다. 도구적 가치는 외래종이 제공하는 자원과 서비스로, 식량·연료·건축재·사료의 공급뿐 아니라 토양 침식 방지, 수질 정화, 생물학적 방제 등 생태계 조절 기능을 포함한다. 내재적 가치는 외래종이 생태계의 구성원으로서 지닌 존재론적 가치에 주목한다. 연구에 따르면 보존과학자의 절반 이상은 외래종이 생물다양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믿으며, 어떤 지역에서는 외래종 도입 이후 사라진 종보다 새롭게 진화한 종이 더 많을 가능성도 제시된다.

외래종 연구를 둘러싼 규범적 틀 또한 비판적으로 검토된다. 이른바 '네이티비즘(nativism)'-인간의 손이 닿지 않은 자연을 '순수한 자연'으로 이상화하는 시각-은 여전히 보전과 침입 생물학의 기본 전제에 남아 있다. 이러한 규범적 가치관은 외래종의 존재를 본질적으로 '해로운 것'으로 간주하게 만들며, 종의 풍부함이

나 생태계 서비스에 큰 변화가 없음에도 '토착종의 대체'를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연구자들은 이러한 접근이 데이터에 근거하지 않은 도덕적 판단일 뿐이며, 생태계의 동적 변화를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한다고 지적한다. 외래종을 경제적·문화적·생태적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도시 생태계와 인간 생활의 일부로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Stanescu and Cummings, 2017).

(2) 종 내러티브와 수사학

'침입'이라는 용어 자체가 과학적 개념이라기보다 정치적 수사라는 점도 지적된다. Stanescu와 Cummings(2017)는 침입종 담론이 '경계'와 '소속', '순수성'을 둘러싼 인간의 도덕적 판단을 반영한다고 본다. 이 언어는 외래종을 박멸의 대상으로 만드는 폭력적 담론을 정당화하며, 국경 통제나 이민자 배척의 은유를 재현한다. 침입종은 단순히 생태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상상 속에서 '위협적 타자'로 구성되며, 이는 인간과 비인간의 관계를 군사적·윤리적 구도로 고착시킨다. 이러한 언어를 해체하는 일은 외래종을 새로운 생태적 행위자로 사유하는 첫걸음이 된다.

외래종을 도덕적 제거의 대상으로 보는 대신, 욕망과 사회성을 지닌 존재로 다시 바라보는 시도는 인간 중심의 위계를 흔든다. 인간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침입종이라는 인식 아래, 담론의 중심은 통제와 구분이 아니라 관계와 공존으로 이동한다. 수사학적 개입(rhetorical intervention)을 통해 인간-토착-비토착의 위계 구조를 전제하지 않고, 다양한 생명들이 얽혀 살아가는 서사를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 이는 생태계 내 타자와의 관계를 다시 쓰는 윤리적 실천이자, 외래종을 둘러싼 언어의 폭력을 전복하는 과정이다. 이와 관련해 Schmitt(2017)는 복원생태학의 언어가 낙원과 전쟁, 순수와 타락이라는 서구적 이분법 위에서 형성되었음을 지적한다. '원래의 자연'을 되찾으려는 복원 담론은 종교적 구원 서사와 결합되어 있으며, 인간을 여전히 통제와 책임의 주체로 남겨둔다. 이러한 수사학은 생태적 이상을 도덕적 의무로 전환시키는 힘을 가지지만 동시에 인간 중심적 구도를 강화한다. 따라서 복원과 관리의 언어 자체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일, 곧 우리가 사용하는 '정원', '자연', '침입'이라는 단어들어 어떤 역사적 권력과 감정의 층위를 품고 있는지를 인식하는 일이 필요하다(Schmitt, 2017).

6) 동물에 대한 미적 경험

(1) 인지적 평가

인간은 오래전부터 동물을 감정적·미학적 대상으로 인식해 왔다. Kellert(1983)는 인간이 동물을 인식하는 방식을 정서적, 인지적, 평가적 차원으로 나누어 분석했다. 그는 동물에 대한 태도가 인간의 세계관과 자연관의 거울임을 강조하며, 자연 속에서의 경험, 교육 수준, 사회적 배경 등이 동물에 대한 태도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귀엽거나 친숙한 동물에게 긍정적 감정을, 위험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동물에게 부정적 감정을 가지는 경향은, 인간의 감각 구조 속에 각인된 미학적 편향을 드러낸다. 동물에 대한 인식은 단순한 개인의 취향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구성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미학과 윤리의 접점을 형성한다.

(2) 동물의 미학과 윤리

Parsons(2007)는 이러한 인식이 철학적 미학의 공백 속에 위치한다고 지적한다. 그는 근대 이후 미학 이론이 예술에 집중하며 동물의 미적 가치를 논외로 두었다고 비판한다. 동물이 복잡한 존재론적 구조를 가지며, 인간이 그들을 감상할 때 쾌락의 근원이 미적이라기보다 기능적·도구적이라는 이유로 배제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동물의 미적 가치를 '기능에 적합한 외형(looking fit for function)'에서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치타의 유선형 몸, 새의 비행 구조처럼 '잘 작동하는 형상'은 단순히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라 자연의 조화와 리듬을 시각화하는 미적 질서이다. 이때 아름다움은 인간의 판단이 아니라 생명의 형식이 드러내는 내재적 조화에 가까워진다.

이 관점은 미적 감상이 반드시 '거리 두기'나 '객체화'를 의미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동물을 아름답게 감상한다는 것은 그 기능과 행동, 환경 속의 조음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감상은 감정적 동일시나 인간화(anthropomorphizing)가 아니라, 생명의 구조와 운동에 대한 직관적 이해로 확장된다. 그러나 Parsons는 동시에 동물 감상이 윤리적으로 문제 될 수 있음을 인정한다. 동물을 단순히 '보는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순간, 미학은 대상화와 폭력의 경계에 놓인다. 따라서 그는 동물의 미학이 인간의 감상 능력을 확장하는 동시에, 그 감상의 윤리적 책임을 자각하게 하는 장치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Hettinger(2010)는 동물의 아름다움이 환경 보호의 정당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미학적 보존주의(aesthetic preservationism)를 옹호하며, '아름다움은 환경 보호의 중요한 이유'라고 단언한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미학이 불평등을 낳는 양면성을 가진다고 지적한다. 사람들은 '카리스마 있는' 대형 동물은 보호하면서 '추하거나 혐오스러운' 종은 무시한다. Hettinger는 이러한 미학적 차별이 인간 사회의 불평등과 동일시될 수 없다고 본다. 동물은 인간과 달리 자율적 도덕 주체가 아니며, 미학적 기준은 그 자체로 생태적 이해를 심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생태적 맥락에서 볼 때, 외형의 아름다움뿐 아니라 생존 투쟁과 생태적 역할 역시 미학적 가치의 일부다.

그는 또한 동물 세계의 폭력과 고통이 미학적으로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지를 탐구한다. 포식과 죽음, 경쟁은 단순히 잔혹한 현실이 아니라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조건이며, 그 속에서 느껴지는 감정은 '비극적 아름다움(tragic beauty)'이라 부를 수 있다. 생명의 순환과 힘의 교차를 직시할 때, 미학은 윤리의 전제 위에서 작동하게 된다. 이러한 미적 체험은 경외감, 슬픔, 두려움이 뒤섞인 복합적 감정 속에서 생명에 대한 감응을 일깨운다. Hettinger에게 동물의 아름다움은 단순한 관조가 아니라 생태적 공존을 사유하게 하는 윤리적 통로다.

(3) 혐오의 정치학

반면 Snyder(2013)는 동물 미학의 이면에 자리한 추함과 혐오의 정치학을 드러낸다. 그는 비둘기를 사례로, 인간 사회가 '추한 동물'을 배제하고 통제하는 방식이 미학적 판단과 권력 작동이 결합된 결과라고 분석한다. 비둘기 배설물이 '불결함'과 '질병'의 상징으로 간주되며 도시 공간에서 추방되는 과정은, 미학이 어떻게 정치적 통치 장치로 기능하는지를 보여준다. Snyder는 Haraway의 '함께 되어가기(becoming with)'나 Serres의 '기생적 관계' 이론이 이러한 현실의 추한 동물에게는 충분히 적용되지 못한다고 비판한다.

그에게 '추함'은 단순한 미적 범주가 아니라 사회적 감정의 정치적 구조다. 혐오의 감정은 인간 중심 질서를 유지하는 감각적 장치로 작동하며, 이를 통해 도시와 인간의 경계가 유지된다. 그러나 이러한 미감은 권력의 산물이며, 우리가 외면한 존재들이야말로 인간 사회의 미학적 한계를 드러낸다. Snyder는 추함의 감각을 배제의 근거가 아니라 공존의 가능성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혐오의 감정 자체를 분석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이야말로 동물-인간 관계의 현실을 이해하는 첫걸음이 된다.

결국 이 네 연구는 동물의 미감이 단순히 감상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과 비인간의 관계를 사유하는 철학적·정치적 문제임을 보여준다. 동물의 아름다움은 기능적 조화 속에서, 추함은 사회적 배제 속에서 드러난다. 그러나 양자는 모두 인간의 감각 구조와 윤리적 상상력을 시험하는 장치다. 동물에 대한 미감은 감각의 문제이자 관계의 문제로, 그것은 세계 속에서 인간이 자신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는가의 질문으로 되돌아온다.

3. 결론

이 연구는 인간 너머 공간 이론의 정리를 통해 인간과 뒤엉켜 살아가는 동반자로서 비인간의 존재를 인식하고 감각하는 새로운 이론과 그에 따른 미감을 발굴하여 알리고자 했다. 이 연구는 인간-너머 정원의 작은 실험을 지렛대 삼아 인류세의 도시와 사회를 위한 변화를 꾀한다. 즉 이 연구가 발굴하는 인간-너머의 공간 이론, 미감, 기법을 이용한 정원 만들기는 궁극적으로 인간-너머 세상 만들기(world-making)를 위한 프로젝트다. 기후 위기에 대한 과학기술적 해법이 논의되고 있지만, 기존의 인간-비인간 이원론을 해체하지 못한다면 착취-생산-사용-폐기로 이어지는 비순환적 경제와 생활양식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 이러한 뿌리 깊은 인식론과 생활양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미학적 실천이 필수적이다. 동시대 지성들은 생태적 위기 대응하여

예술가의 디자이너의 ‘미적인 힘’을 발휘하여 세상을 미적으로 변화시키기를 추구한다. 환경미학자 유리코 사이토와 환경철학자 실비아 푸티아(Sylvie Poutea)는 환경 문제에 있어 예술가와 디자이너가 ‘미적인 힘’을 발휘해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강조하며(Saito, 2007; Poutea, 2018), 인류 학자 애나 칭(Anna Tsing) 역시 비인간을 둘러싼 불안정한 배치에 대한 ‘알아차림’을 출발점 삼아 새로운 시간 만들기(time-making)와 세상 만들기를 기획한다(Tsing, 2015). 이들의 논의는 크게 과타리(Pierre-Félix Guattari)가 말하는 생태철학의 실천 논리로서 미학적-패러다임(paradigme esthétique)으로 이해할 수 있다(Guattari, 2005). 즉 정원예술은 비인간에 대한 미적 의미를 드러내고 생산함으로써 과학기술만으로는 성취하기 어려운 인식존재론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생태 위기의 중요한 실천으로 기능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정원에서 비인간에 대한 다양한 미감과 생태 감각을 발견하고, 본 연구모임의 후속 작업으로는 연구 방법론, 즉 매체 수집 및 분석 방식을 확장하여 공원, 도시, 심지어 지구까지도 하나의 정원으로 재발견 및 재창조하고자 한다. 본 연구모임은 인간 너머의 지속가능한 사회와 지구시스템의 실현을 향하여 인간 너머 정원예술을 지속할 것이다.

참고문헌

- Bauer, A. M., & Ellis, E. C., 2018, *The Anthropocene divide: Obscuring understanding of social - environmental change*, *Current Anthropology*, 59(2), 209 - 227.
- Brady, E., & Prior, J., 2020, *Environmental aesthetics: A synthetic review*, *People and Nature*, 2(2), 254 - 266.
- Elkin, R. S., 2017, *Live matter: Towards a theory of plant life*, *Journal of Landscape Architecture*, 12(2), 60 - 73.
- Elton, S., 2021, *Growing methods: Developing a methodology for identifying plant agency and vegetal politics in the city*, *Environmental Humanities*, 13(1), 93 - 112.
- Hettinger, N., 2010, *Animal beauty, ethics, and environmental preservation*, *Environmental Ethics*, 32(2), 115 - 134.
- Hunt, J. D., 2000, *Greater Perfections: The Practice of Garden Theory*,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Philadelphia.
- Kellert, S. R., 1983, *Affective, cognitive, and evaluative perceptions of animals*, in I. Altman & J. F. Wohlwill (Eds.), *Behavior and the Natural Environment*, Springer, Boston, MA, 241 - 267.
- Macauley, D., 2021, *The four seasons and the rhythms of place-based time*, in *The Seasons: Philosophical, Literary, and Environmental Perspectives*, SUNY Press, Albany, NY.
- Ott, K., & Surau-Ott, V., 2024, *Philosophy of gardening and a sense for scents: An environmental ethics perspective*, *Studies in the History of Gardens & Designed Landscapes*, 44(2 - 3), 178 - 196.
- Parsons, G., 2007, *The aesthetic value of animals*, *Environmental Ethics*, 29(2), 151 - 163.
- Philo, C., & Wilbert, C., 2004, *Animal spaces, beastly places: An introduction*, in *Animal Spaces, Beastly Places: New Geographies of Human - Animal Relations*, Routledge, London, 1 - 36.
- Power, E. R., 2010, *Human - nature relations in suburban gardens*, *Australian Geographer*, 36(1), 39 - 53.
- Saito, Y., 2007, *Everyday Aesthetics*,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IV - 2 ‘Appearance of Aging’.
- Schmitt, C., 2017, *Paradise and warfare: Aldo Leopold and the rhetorical origins of restoration ecology*, in J. Stanescu & K. Cummings (Eds.), *The Ethics and Rhetoric of Invasion Ecology*, Lexington Books, Lanham, MD, 117 - 139.
- Snyder, E., 2013, *The ugly animal: Aesthetics, power, and animal - human relationality*, *Humanimalia*, 5(1), 136 - 168.
- Springgay, S., & Truman, S. E., 2017, *Sensory inquiry and affective intensities in walking research*, in *Walking Methodologies in a More-than-Human World: WalkingLab*, Routledge, London, 25 - 44.
- Stanescu, J., & Cummings, K., 2017, *When species invade*, in J. Stanescu & K. Cummings (Eds.), *The Ethics and Rhetoric of Invasion Ecology*, Lexington Books, Lanham, MD, vii - xviii.